법회안내



청화스님(전 태안사 조실)12일 오전10시 광주 성륜사 법회. 14일 오전10시 청평 반야사 지장재일 특별법회. 15일 오전11시 대구 파동 세심선원 특별법회. 25일 오전10시 변산 실상사 법회. (053)768-5900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17일 오전10시 울산 정토사 법회. 18일 오전10시 진주불교회관 개관 5주년 기념법회. 5월 3일 서울 법수선원 봉축법회. (0597)63-9551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14일 화요일 오후4시 동국대 정각원 '불자여 현실을 직시하자' 주제 특별법회. (02)260-3016



법정스님(길상사 회주) 짝수달 셋째 일요일 오전10시 길상사 일요법회. 19일 오전10시 길상사 일요법회. (02)3672-5945



지도스님(대구 관오사 주지)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아함경〉강의. 매월 음력 1일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15일 보름법회. (053)784-3669



법현스님(레크리에이션 포교회 회장)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10시 30분 가족법회.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8시 철야정진법회. 매월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중앙대불교학생회 동문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신중기도 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30분 천도기도법회. (02)914-3558



토진스님(광주 관음사 주지) 매주 토요일 오후3시30분 학생법회. 매월 음력 1일 으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 30분 관음불교대학 강의. (062)223-766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동심이 그린 부처님은…"

어린이날 · 초파일 맞아 그림 · 글짓기대회
월간 불광 · 불국사 · 까치마을 등 신청자 접수



◇맑은 하늘 아래 모여 앉아 부처님을 그리는 어린불자들의 모습은 천진하기만 하다.

동심속에 자리잡은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교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가 어린이불자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불국사(주지 설조스님)는 제13회 봉축 어린이 짓기 그리기 대회를 26일 오전 10시 불국사 경내에서 개최한다. (0561)746-1472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촌장 법전스님)는 5월5일 남산골 공원'및 총정사에서 '이웃 속의 부처님'을 주제로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연다.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10인이상 단체의 참가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02)873-6646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주최하는 제4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5월5일 오전 10시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처님이 좋아요!'를 케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대회는 선착순 1천명을 모집하며, 참가신청은 25일까지 월간 불광으로 하면된다. (02)420-3200

신행수첩

금강경 불교실상 배우자
안양사 성공스님 초청법회

부처님법의 실상을 담고 있는 〈금강경〉.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겨야 할 요즘, 불법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는 법회가 마련된다.

부산 안양사(주지 각진)에서는 14일~18일까지 금강경 독경 음반의 선구자인 성공스님을 법사로 금강경 산림법회를 연다.

이번 법회는 공덕과 지혜로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현하는 불자가 되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051)646-9810, 634-3550

마음의 눈으로 세상보기
해은사 행복찾기 수련

김해 해은사(주지 정야)는 1일출가 행복찾기 수련회를 마련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1시부터 일요일 5시까지 실시되는 행복찾기 수련대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기 본연의 실상을 자각하고, 자기의 주인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것이다. (0525)33-0705

아껴쓰고 다시쓰는 지혜
길상사 · 봉은사 알뜰시장

맑고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은 19일 성북동 길상사 경내에서 알뜰시장을 연다. 재활용 의류, 전자제품 등을 비롯 각종 환경 상품도 전시 판매한다. (02)741-4696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20일부터 5월3일까지 봉은사 일주문앞에서 의류, 재생용품알뜰시장을 연다. (02)511-6070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도 11일~10월4일까지 잠실 탄천 주차장서 주말벼룩시장을 개설한다. (02)980-5120

염불만일회 일일기도 수첩 배포



염불일일기도

제6차 염불만일회 결성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해장·보광·김재일)가 염불신앙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포켓사이즈 염불수첩 〈염불일일기도〉를 발간했다.

이 수첩에는 염불만일예불의식, 수행일과 내용, 염불의 의미, 염불의 종류, 염불만일발원문, 한글불설아미타경 등 염불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경제위기 등 현재 닥친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자며 결성된 염불만일회는 지금까지 1천8백여명이 동참하는 등 전국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염불만일회는 5월부터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세미나를 열고, 아미타 성지순례대회도 가질 계획. 아미타불을 염하는 염불만일회 결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보다 많은 불자들을 기다린다. (02)732-1215

게 시 판

♣ 인사

문화관광부 ◙ 학예연구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건무 △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조유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이원복

◙ 국립박물관장 △광주박물관장 김성구 △국립민속박물관장 이종철 △부여박물관장 서오선 △대구박물관장 금권구 △청주박물관장 고수길 △전주박물관장 직무대리 이영훈

♣ 알림

▲불교문화 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26일 화순 천불천탑 운주사, 나주 덕룡산 불회사, 종봉산 죽림사 등지로 제35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062)228-9098

▲이웃을 위한 물품후원=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의 생필품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바자회용품을 후원받고 있다. 봄 가을로 두차례 실시예정. (042)633-1141

▲칠불암·화엄사·연곡사 순례=조계사 대승불자회는 18일~19일 1박2일간 칠불암·화엄사·연곡사로 순례법회를 떠난다. (02)736-4848

♣ 모집

▲제1기 부모대학=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은 5월12일 부터 실시하는 제1기 부모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녀의 성심리 교육, 부모와 자녀 효과적 대화기법, 학습관리, EQ 지수 향상프로그램 등 강의. 선착순 마감. (042)633-1141~3

▲성훈따주기 수강생=수효사(주지 무구)는 제26기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 14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효사 문화원에서 강의. (02)313-3060

▲연극교실·칼라믹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액세서리, 선물용품, 장식, 인형 등을 만드는 칼라믹스(화·목 오전 11시~12시30분)와 전문 배우를 초빙해 강의하는 연극교실(토 오전 11시~12시30분) 수강생을 모집한다. 15일에는 어린이 동화구연교실 공개강좌도 연다. (02)852-0525

▲소쩍새마을 기자=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소식지 소쩍새마을 기자를 모집한다. 편집 유경험자. (02)928-0750

▲57사단 향승=57사단향승위원회(위원장 법장)는 서울의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에 거주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향승을 모집한다. (02)932-2333

♣ 이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임동주) 본부가 종로구 관훈동에서 종로구 견지동 110-40번지 청송빌딩 503호로 옮겼다. (02)723-9811

♣ 부음

▲안길모씨(전 불교방송 보도국장) 모친 김옥순씨(93)가 4일 새벽 1시 별세했다. 고인은 6일 충북 괴산면 불정 선영에 안치됐다.

나의 수행일기



황영지 〈원화당한의원 원장〉

"단정·검소·진실을 근본으로"

무료침술 · 자원봉사 '나눔의 기쁨' 체험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가끔 침상에 누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하고 자책하듯 내게 질문을 던질때가 있다. 그럴때면 나는 그들에게 짧은 소견이나마 내가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 해준다. 우리 육신의 모든 고통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생로병사 속에 해답이 있다고 말이다. 왜 아플까 생각하면 더 아픈법, 병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육신을 나, 내것이라고 생각한다. 육신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모하고 쇠잔하는 데서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설하셨다. 현명한 사람들은 육신을 나로 보지도 않고 내것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육신이 변모하고 쇠잔해도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없고, 육체의 병도 없게되는 것이라고.

4년여전 혜원스님이 운영하던 연등포교원을 나가게 된 것이 불자로서의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전까지도 불교와 썩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혜원스님은 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많은 감화를 받았다.



스님은 항상 마음을 단정히 하고,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써 근본을 삼으라고 하셨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마음 법의 도리를 일러주신 것이다.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만두도록 내 마음자리를 스스로 다져나갔다. 그러다 연등포교원이 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 연등포교원을 함께 다녔던 도반 6여명이 모여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마음 닦는 공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만둔다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작은 것 부터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로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참선공부였다. 일을 대부분 가정주부인 도반들과 함께 마치고 종로 수선회에서 2년간 참선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나는 틈틈이 〈화엄경〉〈법화경〉 등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어나갔다. 큰 공부는 아니었지만 경전을 읽다보면 환희심이 절로 났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았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꾸준히 읽어가며 또 다음 경전을 접하다 보면 그 부분이 스스로 해결되곤 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그리 깊이있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부족한 만큼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나가면 된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조금씩 이러한 부분들을 체워나갈 생각이다.

참선수행과 더불어 그 무렵 새롭게 시작한 일이 바로 성남에 있는 자광원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세상사람들이 자원봉사라고 부르는 그 일은 내 가족과 도반들의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작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이면 자광원에서 밀린 빨래도하고, 아무도 손봐주지 않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옷감 바느질도 하고, 목욕시키기 등을 한다. 그렇게 그들과 하루 종일 한가족이 되어 생활하는 일은 우리모두에게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또한 작은 것에도 행복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자신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된다.

얼마전 길1동 노인정 근처로 한의원을 옮겨 온 후 주변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 침시술을 하고 있다. 알음알이로 소문을 듣고 멀리 길2동 노인정에서 찾아오는 노인들도 있다. 그럴때면 나는 더욱 환희심이 솟는다.

한의원을 찾는 모든 이들은 내가 가진 것을 골고루 나눠 줄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스승이다. 나는 오늘도 반갑게 그들과 만난다. 그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98 어린이날 기념 제4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부처님이 좋아요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당대풍' 5월 5일 어린이 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 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해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치루어졌던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대회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와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옛날 옛날에 어린이 날이 있었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 참가자와 함께 하는 전래놀이 '우리 놀이 마당'

무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선재이벤트에서 진행하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어른들을 위한 전시마당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 선생님의 '불교 동자조각전'
·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전시회

· 일 시: 1998년 5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성북동 길상사 (☎ 3672 - 5945~6)
· 대 상: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 상: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20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시상내역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5,000원 (15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 준비물: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모자착용, 돗자리)
· 참가자전원 기념 티셔츠, 동화책, 음료수 등 기념품 증정(선착순 1,000명)

※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길상사 실내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당일 지하철 4호선 삼선교역 6번출구에서 길상사까지 셔틀버스운행)

참가 신청 및 문의전화: 월간「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37) 85-9952~4
선재이벤트 02) 720-1506

주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주최: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후원: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불교 미술인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TV, 학교법인 동국학원,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 보덕학회 /협찬: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출판영업인협의회, 서울우유